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복합쇼핑몰 건립 본궤도

2023년 주요 광주시정

강기정 복지공약 세계적 ‘주목’
대형 유통업체들 광주 진출 속도
미래차 특화단지 등 먹거리 선점

2023년 광주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가시화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인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대규모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한해동안 광주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세계가 주목한 ‘통합돌봄’

올해 최고의 광주시 정책으로 선정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 사업으로 광주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으로 확대해 오는 28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로 잡히는 선별주의, 본인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계획을 세웠다. 이후 가사,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16개 신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급한 경우 긴급 돌봄을 실시했다. 여기에 은둔과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협업도 눈부셨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97개 동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고 이들은 광주 전역을 뛰어다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작된지 한달만에 새로운 신청이 2309건 접수됐으며, 3422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최종적으로는 시행 8개월 만에 2만3000건의 의무 방문과 신청을 받아 8800명이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적인 주목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이 수여하는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복합쇼핑몰 본격화

올해 광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추진이 본격화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문화쇼핑몰 ‘더현대 광주’, 신세계 프리미엄백화점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통합돌봄 동·구 대표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신세계프라퍼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다.

먼저 광주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확장사업이 기존 이마트 쪽 부지에서 계획을 변경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 부지를 활용해 추진된다. 이로써 특혜시비 등에서 자유로워진 광주신세계는 내년 1월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랜드 스타필드’를 추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0월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60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22일 광주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더현대 광주’도 1년여 간의 사전 협상 끝에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여금 규모(전체의 54.45%·5899억원)를 수용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휴먼스홀딩스 측이 소유한 1만평 규모의 부지 매입 계약에 나설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되면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미래먹거리 선점 주목

광주의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첫 발도 주목을 받았다. 광주는 올해 미래차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빛그린국가산단·진곡산단 등 714만㎡ 부지에 자율차부품 소부장 집적단지를 조성,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광주 100년을 그리는 ‘영산강 100리길, Y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나왔다. Y 프로젝트는 맑은물·익사이팅·एको·연결 등 4대 가치를 20개 세부과제를 통해 실현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누리호·글로벌대학’ 경사 국립의대 유치 한 목소리

2023년 주요 전남도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순천대, 지역 선도대학 성장 발판
국립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2023년 전남은 격변의 한해를 보냈다. 고흥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국가 중요산업인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됐고, 교육부가 선정한 글로벌대학30에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소멸 직전 지역대학의 활로를 뚫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의료여건이 가장 열악한 전남에서 의과대학 유치 열망이 분출되는 한해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파동에 따른 전남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도 전개됐다.

●실용위성 탑재 ‘누리호’ 성공

지난 5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3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했으며 실용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흥에 위치한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 일대를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전남도는 겹경사를 맞았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2028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173만㎡ 부지)에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전용 국가산단이다. 현재 전남도는 국가산단에 입주할 입주기업의 수요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대, 지역 유일 ‘글로벌대학’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인 ‘글로벌대학30’에 국립순천대학교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대학30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해 선도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천대는 이번 공모에서 3대 특화분야 강화 등을 실행계획서에 담았다.

3대 특화분야는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고흥·여수·광양 등의 주력 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상생안이다.

글로벌대학사업이 지역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전남선수단이 지난 10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전남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 관건인 만큼, 전남도는 순천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도 신설했다. 전남도는 최근 ‘대학혁신과’ 신설 내용이 담긴 하반기 조직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과’는 앞으로 순천대 글로벌대학 육성 지원 및 내년부터 도내 대학 추가 선정 지원 등 대학혁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전남 의과대학 유치” 열망 분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여건이 취약한 전남에서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11월에는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도민을 대표하는 정책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333명이 참여했으며,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신설 정원 배정’이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동·서부권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론도 부상했다. 전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에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권 여야 4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이 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협력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광주에서도 전남권 의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발’

지난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전남의 반발이 거셌다.

현재 전남도는 해수 방사능 오염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전남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